

지방분권화 시대의 어학 연구*

김 정 대**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미시적 접근 |
| II. 방언 조사 및 연구 | IV. 방언의 표준어 사정 작업 |
| 1. 거시적 접근 | 1. 사정의 필요성 |
| 2. 미시적 접근 | 2.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 |
| III. 지명 조사 및 연구 | V. 땀음말 - 제언을 곁해 - |
| 1. 거시적 접근 | |

<Abstract>

Studying Korean Linguistics in a Decentralized Era

Kim, Jung-Dae

The author has considered it as important research topics to collect and study dialects and place names, and select Standard Korean words in this decentralized era. As for dialect and place

* 본고는 2004년 경남대학교 학술 논문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 논문이 2004년 한민족어문학회 전국 학술발표대회(2004 9. 18.~19.)에
서 주제 발표의 하나로 발표되었을 때, 박종갑 교수는 의미 있는 토론을
해 주셨고, 오종갑 선생님은 질문을 통해 고견을 들려 주셨다. 두 분께 고
마움을 표한다.

** 경남대

name, it has been emphasized to collect as many linguistic data as possible through field work and to database them. The author has emphasized that those data collected in this way should be evaluated under rigorous linguistic theory. The more we collect various kinds of field data and study them on a deep level, the broader is the selective flexibility of Standard Korean words.

In connection with regional dialect data, we had better collect entries in its traditional vocabulary still remaining in a large scale in one part, and pay careful attention to record natural utterances of informants for handing down them to posterity after posterity. Though the data of place names have been brought to us in documents, we must quickly collect and study them through field work as well, for materials in documents are rather poor.

The last, but not the least, important emphasis should be put on the proposition that the Korean Standard Language policy be changed in a direction from a Seoul dialect-based system to the common and all Korean-based system by introducing various kinds of regional vocabulary to Standard Korean words.

I. 머리말

현재의 우리 나라처럼 지방분권화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분권화 시대의 어학 연구’가 종전의 ‘중앙집권화 시대의 어학 연구’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알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말을, 앞으로 지방분권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럴 경우 어학 연구는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논의할 내용은 다양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도 그것

이 지방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연구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연구될 수 없다는 식의 논의는 거의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지방분권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시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연구할 여건이 좋다거나 그런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진행될 것이지만, 몇 가지 제약이 없지 않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모든 연구를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걸맞는 연구 주제를 발굴 또는 강조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연구를 뒷받침해 줄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전자를 연구자들의 몫이라 한다면, 후자는 지방정부나 그와 비견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단체들의 몫이라는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관학 협동, 산학 협동이라는 이름의 연구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것을 다룰 여유가 없다. 이것이 이 글이 지니는 첫 번째 제약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방언, 지명, 표준어 사정과 관련되는 문제를 이 글의 주제와 관련시키면서, 그 주된 내용은 방언이나 지명은 연구에 앞서 현지 자료 수집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수집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손만대로 전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는 또다른 중요한 논의의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만 강조하고 그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토는 거의 손대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 글이 지니는 두 번째 제약이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어학 연구 주제가 방언, 지명, 표준어 사정에 한정되지 않을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 부문으로 주제를 한정시킨 것은 세 번째 제약이 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시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가는 현장 자료 — 방언 및 지명 — 를 폭넓게 수집하여 자료화하는 일이다. 표준어 사정 작업이란, 방언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표준어로 사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위해서도 방언(및 지명) 자료의 수집과 연구는 초마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장 자료의 조사와 정리·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선행 연구자들의 제안이 없지 않았지만,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될 것이다.

II. 방언 조사 및 연구

1. 거시적 접근

방언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란, 방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는 지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료 수집과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지명에 비해 방언은 문헌 자료로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미시적 접근이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엄밀한 언어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방언의 수집과 연구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강조되어 왔다. 그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은 방언 연구가 국어사 기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야겠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언어 사용’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언어가 어느 하나로 통일된 단일한 언어가 아니라 다양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 연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동물의 내면 세계의 상당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이제는 일반화된 이야기의 하나다.

그런데 이 명제를 한 언어권 안에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즉, 다양한 방언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국어의 다양

한 모습, 즉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내면 세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방언은 이제 표준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환경¹⁾ 아래에서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좋은 방언 보유자를 만나는 일은 점차 힘들어지고, 그나마 팬텀은 제보자도 우리를 만나면, “표준말로 답할까요, 사투리로 말할까요?”라는 농담 섞인 말을 곧잘 하곤 한다. 이런 제보자는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표준어보다 열등한 말이라는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이제 방언 조사는 어휘·문법·음운 등에 대한 미리 만들어진 질문지를 가지고 한정적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든다. 살아 있는 말 자체가 녹음되어 음성으로 후대에 전수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된 질문지로 한정된 자료를 구하려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방언 화자들의 자연 발화 자체를 통째로 녹음하고, 녹음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손만대로 전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뭉치 구축 작업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지만, 음성 자료를 그대로 자료화한다는 점이 일반적인 말뭉치 구축 작업과 다르다 할 것이다. 이런 작업을 시도하는 목적은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 유산을 전승하는 데 있다. 방언(언어)은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화 유산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²⁾

1) 자연 발화 조사

- 1) 표준어 교육, 매스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 교통의 발달 등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다는 얘기는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이농 현상 역시, 방언 전승을 위해서는 그에 못지 않은 심각한 원인이라는 점은 간과되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최명옥(2001가:23-24) 참조.
- 2) 방언 연구가 정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논의로는 곽충구(2002)를 참조.

이처럼 요즘의 방언 조사는 문화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성을 심분 공감한다 하더라도, 자연 발화를 함부로 채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상적인 경우라면, 방언 화자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는 곳에 가서 녹음을 따는 일인데, 이 점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우선은, 잘못하면 무단 녹음이라 하여 생각지도 않은 곤욕을 치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느 지역 방언이라고 밝혀 두어야 하는데, 화자 가운데 다른 방언 화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의 자연 발화를 채록하는 일은 이래 저래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은 자연 발화 채록에도 일정한 수집 방법이 있음을 말해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제보자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점은 여느 방언 조사 때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둘째, 두 가지 조사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의도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거기에 따라 자연 발화를 채록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방언 조사를 할 때, 이를테면 ‘농사, 가옥, 의식주’ 등등의 어휘부터 시작하여 문법, 음운 등으로 가는 것과 같은 방법을 원용할 수 있다. 절대 다수의 방언 사용 지역이 농촌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그들과 친숙한 내용의 자연 발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아래의 <자연 발화 주제 정하기> 참조). 다른 하나는, 아무런 시나리오 없이 대화하는 내용을 채록하는 일이다. 그러나 채록을 할 때는 제보자 조건을 확인하고, 또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셋째, 자료 확보가 우선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자연 발화를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길도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사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에 대해서는 <2.1.2>에서 다시 다룬다

<자연 발화 주제 정하기>

참고로, 2003년도부터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남북한 지역어 조사 사업 중 자연 발화 조사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³⁾

- 1) 처음 만나서 제보자의 마을에 대한 배경과 성장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 2) 부부의 만남과 결혼식의 준비와 과정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한 경험담을 듣는다
- 3) 배우자나 친족의 사망 과정과 장례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 4) 현재 모시고 있는 제사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 5) 벼농사를 짓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게 한다.(배운다는 자세가 중요)
- 6) 보리농사와 밀농사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게 한다
- 7) 목화, 삼의 재배에서 길쌈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게 하고, 제보자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듣는다.
- 8) 누에를 재배해서 비단을 만든 경험을 듣는다
- 9) (삼베, 무명, 비단으로) 손수 옷을 짓는 과정에 대한 설명 또는 제보자의 경험을 듣는다
- 10) 광산 지역이나 해안가의 경우 채광과 고기잡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게 한다.(해당된 경우에만)
- 11) 철에 따라 들에서 재배하는 채소의 종류 및 재배 방법, 산에서 채취하는 나물의 종류와 채취 방법, 그리고 그 요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 12) 밀반찬의 종류와 조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 13) 집터를 선정하는 방법 및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주로 손수 지어본 경험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 14) (남자) 고누, 자치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윷놀이 등 어릴 때 놀았던 민속놀이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경험담을 듣는다
- 15) (여자)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콩주머니 던지기(오재미 치기), 소꿉장난, 사방치기 등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경험담을 듣는다.
- 16) 옛날에 많이 발생했던 질병과 전통적인 치료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3) 국립국어연구원(2004. 7), 『지역어 조사 질문지』(가본), 8-24쪽 참조

- 17) (여자) 시집살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듣는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는 것도 극적인 설명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18) 전통 민속 명절에 하는 일과 자신의 집안 또는 마을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설명과 자신의 경험담을 듣는다
- 19) 어릴 때 들었거나 알고 있는 전설이나 설화를 듣는다

국립 국어 연구원의 자연 발화 시나리오에는 모두 19개 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는 다시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⁴⁾ 이것은 남북한이 각 도별로 동시에 진행하는 방언 조사이니만큼, 주제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다.

2) 전사

전사는 방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정밀 전사(narrow transcription)와 약식 전사(broad transcription)로 나누어지고, 전사에 동원되는 기호에 따라 IPA식 전사와 한글 전사로 분류된다. 특별히 정밀한 음성적 차이를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한글로써 약식 전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글 전사를 할 때도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음운 체계와 관련되는 전사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발화와 관련되는 전사인데, 전자는 후자(뿐만 아니라 어휘 항목)를 위한 전제와도 같은 것이다.

-
- 4) 대표적으로 위 1)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명칭과 관련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2) 마을의 특징 또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3) 마을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4) 마을 거주민들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주로 어떤 성씨들인지) (5) (제보자는) 어디서 태어나, 어디서 성장하였습니까? (6) (제보자의) 부모님들의 고향은 어디인가요? (7) 부모님들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남한의 출신 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 (8) (제보자의)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떠나요? (9)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습니까? (10) 배우자의 출신 지역과 성장지는 어디인가요?

전자의 내용은 대충 이러하다. ‘에/애’와 ‘으/어’의 구별이 없는 방언에서 이들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위’로 전사될 수 있는 실제 발음은 단모음 [y]인가, w계 상향 이중모음 [wi]인가, 아니면 j계 하향 이중모음 [uj]인가; [ʝʌ]와 [jɛ]를 한글로는 어떻게 전사할 것인가, ‘ㅈ’이 구개음으로 발음되는 지역과 치음으로 발음되는 지역이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비모음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조 방언의 성조 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⁵⁾

후자를 위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고려될 법하다. 첫째는 현행 맞춤법식 전사 방법에 따르는 것이고, 둘째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며, 셋째는 이 둘을 절충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은 시각적인 효과는 뛰어나지만, 정확한 음성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신을) 신고”라고 적어 두면, 그것이 [신고]인지 [싱고]인지, 또는 [신꼬]인지 [싱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한 보기이다. 받침이 겹받침으로 전사될 때 그 발음이 어떤지도 문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방법은, 조사자는 조사 기간 동안 자신이 다른 천체(天體)에서 온 사람이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제보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최명옥 2004:8)는 정신에 입각한 전사이다. 정확한 음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형태 고정이 불가능해 읽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점이 큰 결점이다. ‘나 탄때, 사라브로’가 ‘낮한때, 사람으로’로 곧바로 이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셋째 방법은 극단적인 형태주의와 음소주의를 적절히 안배한 것이다. 이 경우 안배의 정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어미가 올 경우, 그리고 거센소리되기와 관

5) 요즘 주로 고안되고 있는 한글 전사 방법은 컴퓨터 자판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유해류 역학서에 동원된 외국어 표기법의 전통을 되살리는 방법도 강구됨직하다. 컴퓨터 자판으로 지원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런될 때는 분석적으로 적고, 나머지 경우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 경우의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들쥐 한 마리가 콩알 한 개를 돌멩이 위에 놓고 ..
 - ㄱ. 내가 밭에 가서 일로 하는데 들지 한 바리가 콩알 한 개로 돌멩이 옥에 놓고 .
 - ㄴ. 내가 바테 가서 일로 하는데 들찌 함 바리가 콩알 항 개로 돌뻔이 우게 녹코 ..
 - ㄷ. 내가 밭에 가서 일로 하는데 들찌 함 바리가 콩알 항 개로 돌뻔이 옥에 놓고 ...

2. 미시적 접근

그 동안 우리 나라 방언 연구는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업적을 되돌아보면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는데, 용어 사용의 문제, 방언 구획의 문제, 성조 기술의 문제, 방언 사전 편찬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런 점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생각을 개진해 보기로 한다.

첫째, 용어 사용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방언 구획과 관련해서 적잖은 오해가 있어 왔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방언 구획’은 어떤 언어가 사용되는 지역사회를 방언 체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언학적 작업이므로, 방언 구획을 위한 언어 항목은 방언 체계를 반영할 수 있을 때에 타당성을 얻게 되며, 방언 체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언어 항목의 선택은 바로 방언 구획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최명옥 2001나:219). 그런데 방언 체계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방언 구획이라는 이름을 단 논의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조사 항목의 특성 유무, 이를테면 ‘ㄴ/ㄷ’의 대립이나 단모음 수, 성조 등과 같은 개별적인 언어 사실에 의해 방언권이 구별될 때, 그것은 지역의 구분 또

는 분할이지 방언 구획이 아닌 것이다.⁶⁾ 체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방언권 분할은 가능해도 방언 구획 설정은 불가능한 것이다.

‘방언 분화’라는 이름이 종종 방언 구획의 의미로 쓰인 논의를 발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방언 분화는 통시론적인 문제이고 방언 구획은 공시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 또한 혼동해서 쓰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방언 구획과 관련해서 ‘방언 지리학’이라는 용어도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 방언 지리학은 어떤 언어(방언)의 변종 간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의 과정을 추정하는 방언학의 한 분야이다. 통시론적인 문제라는 점에서는 방언 분화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방언 구획론과 방언 분화론, 방언 지리학은 이렇게 그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이다.⁷⁾

둘째, 방언 구획의 문제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언 구획은 방언 체계의 차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서로 체계가 다른 방언들이 존재한다면, 그 사이에는 방언을 구획하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언 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언어 요소를 선정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는데, 그 요소를 선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언어의 체계는 음운·문법·어휘 등 제반 측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재까지는 문법이나 어휘적 측면보다는 음운적인 측면이 체계를 보다 잘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⁸⁾ 그리고 방언 구획은 대방언권, 중방언권, 소방언권으로 구획되기 때문에, 이들 각 방언권들을 설정할 수 있는 상위의 언어 요소와 상대적인 하위의 언어 요소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방언 구획은 아니지만, 방언권 설정의 문제도 새삼스럽게 고려해 보

6) 필자(2000)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한 예가 된다.

7) 방언 연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잘못 사용된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명옥(2001나:214-219) 참조.

8) 방언 구획의 방법에 대한 설명과 논의에 대해서는 최명옥(1994:878-880, 1998:400-403)을 참조.

아야 할 대상이다. 그 동안 방언 구획이라는 이름의 여러 논의들이 실은 방언권 설정을 시도한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점은, 언어의 계통론을 말할 때, 이른바 ‘공통 특징론’의 문제와 ‘음운 대응’의 문제를 떠올려 준다. 전자는 체계의 고려 없이 인상적인 외적인 특징에 바탕을 두고 언어의 계통을 가른 것인 반면에, 후자는 철저히 세부적인 자재(음운)를 대응시킨 결과로써 언어의 계통을 가른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에 의한 것이 진정한 언어의 계통이 될 수 없듯이, 방언 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방언의 대조는 진정한 방언 구획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성조 기술의 문제이다. 주로 경상도 방언에 집중된 성조 기술과 관련해서는 논자들마다 기술의 태도가 같지 않음이 쉽게 발견된다. 특히, 성조소가 몇 개이나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경남 방언 연구를 예로 들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남 방언 성조소는 크게 2단설(고·저)과 3단설(고·중·저)로 나누어지고, 3단설은 기저 성조형과 표면 실현형을 구별하여 기술하는 태도와 표면 실현형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태도로 대별된다.

우리의 결론을 미리 말하면, 2단설로는 경남 방언의 성조를 제대로 기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단설 주장의 근거는 음성적으로는 3단 혹은 그 이상의 성조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음운론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상대적인 고저의 구별만으로 충분하다는 데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마산’은 ‘LH’로 기술되고, ‘부산’ 역시 ‘LH’로 기술된다. 두 단어 모두 1음절이 상대적으로 저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말 뒤에 ‘까지’와 같은 조사를 붙이면 문제가 발생된다. ‘마산까지’는 ‘LHHL’로 기술되는 반면에, ‘부산까지’는 ‘LLHL’로 기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의 높이로 말하면, 전자의 ‘H’는 후자의 ‘L’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애초 ‘마산’은 ‘LM’인 반면, ‘부산’은 ‘MH’이기 때문이다. 2단설은 이런 일반적인 토박이 화자의 직관을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 방언 사전 편찬 방법의 문제이다. 방언 사전 편찬 방법론에 대

해서는 김영태 외(1994)와 김정대(2001가)에서 꽤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표제어 선정 방법에 대한 문제만 한 번 더 강조하기로 한다. 예를 들어, 경남 방언 사전을 편찬한다고 했을 때, 의미는 같고 형태는 각 지역어(군 단위)마다 약간씩 차이나는 경우 어떤 것을 표제어로 올려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의 표준어 정책에 비추어 보면,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 지역어를 ‘경남의 표준어’로 삼고, 창원 지역어 어형을 표제어로 삼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뒤(4.1)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서구의 표준어는 한 언어의 공통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특정 지역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상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경남 방언 공통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표제어 선정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대표형’이라고 부른 바 있다.⁹⁾

III. 지명 조사 및 연구

1. 거시적 접근

방언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시적 접근이란 지명 자료를 최대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명 자료는 문헌 조사를 통하여 얻는 방법과 현지 조사를 통해 얻는 방법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후자이다.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방언 자료와 마찬가지로 지명 자료도 하루가 다르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1) 문헌 자료

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태 외(1994:67-76)와 김정대(2001가:265-271)를 참조할 것

지명 자료를 싣고 있는 문헌으로는 지리지류, 지도류, 지방행정 명칭 일람류, 지명사전류, 지명 유래집 따위가 있다. 이 자료들은 간행 시기에 따라, 크게 조선 시대,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의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시기에 간행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의 수와 양은 상당히 많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시대의 지리지와 지도만 하더라도, 지리지 가운데 군현별 읍지(邑誌)가 530여 종 800여 책이 되고, 읍지 등 일반 자료 속에 포함된 고지도를 제외한, 독립된 형태의 고지도는 대략 193종 800여 책 5,000여 매 정도가 된다. 그리고 각종 지리지 및 지도에 실려 있는 지명들은 대개 군현, 면사방(面社坊), 동리촌(洞里村) 등의 행정구역명과 산천(山川), 고개(嶺峴峙), 나루(津渡), 개(浦), 들(野坪), 제언(堤堰), 다리(橋梁), 역원(驛院), 봉수(烽燧) 등의 자연 지명 및 인문 지명들이다(임용기 2002:89-90).

그러나 문헌 자료만을 조사·연구하는 데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기억되어야 한다. 하나는, 지명이 아무리 상세하게 적혀 있는 문헌이라 해도 현지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에 비하면 그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은, 전통적인 거의 모든 문헌이 지명을 한자로 적고 있어 그 정확한 토박이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¹⁰⁾ 셋은, 문헌상에는 잘못 기재된 예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서 앞의 두 문제는 현지 조사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언급하기로 하고, 문헌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¹¹⁾

<표 1>은 필자가 1997년에 『馬山市史』를 펴낼 때 집필을 맡았던 「방언·옛 지명편」에 나오는 마산시 진전면(鎭田面)의 자료다(김경대 1997:1449). 역사적으로 진전면(鎭田面)은 조선 시대의 창원도호부에

10)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나온 『朝鮮地志資料』(1914 이전)는 한자말 지명과 함께 당시의 토박이말 지명도 남겨 놓아 매우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1) 지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임용기(2002)를 참조

소속되었던 진서면(鎭西面)과 진주목에 소속되었던 양전면(良田面)이 1914년 3월 1일자로 일제에 의해 강제로 통합된 면 단위 행정구역명(당시 경상남도 창원군 소속)인데, 1995년도 도농 통합시 조치에 의해 현재 마산시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마을 이름을 문헌에 기재한 최초의 문헌은 『戶口總數』(18세기 말)인데, 당시 필자는 이 문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¹²⁾ 19세기 전반기에 간행한 『慶尙道邑誌』(1832년 경)로써 그 시발을 삼고, 중요한 전통 지리서의 하나인 『嶺南邑誌』(1871년)를 거친 뒤, 일제 강점기의 중요한 두 문헌인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 약칭 『명칭일람』),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약칭 『신구대조명칭』)¹³⁾을 참조하여 마산시 진전면 관할 마을 이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정리했던 것이다.

12) 『戶口總數』를 본 것은 그 뒤의 일이다. 창원대학교 민공기 교수의 도움이 있었다. 『戶口總數』에는 『慶尙道邑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栗峙里 다음에 巖下里, 大谷里 다음에 所達里, 鼎谷里 다음에 城松浦里라는, 그 이후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마을 이름 세 개가 더 있는 대신에, 檜洞里, 鼎谷里라는 두 개의 마을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理明里는 耳鳴里로, 木花里는 木花田里로, 時落里는 時落浦里로 기록되어 있다.

13) 앞서 소개한, 일제 강점기 때의 자료인 『朝鮮地志資料』(1914 이전)의 내용도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까지 이 자료를 보지 못했다

<표 1> 네 문헌에 나오는 경남 마산시 진전면 관할 마을 이름

경상도읍지 (1882년경)	영남읍지 (1871년)	명칭일람(1912년)	신구대조명칭(1917년)	비 고 ('는 1914 3 1 당시 조처)
栗峙里	栗峙里	鎭西面 良田面	옛이름 새 이름	『명칭일람』에는 미기재.
斤谷里	斤谷里	斤谷里	斤谷里 斤谷里	
林谷里	林谷里	林谷里	林谷里 林谷里	
谷安里	谷安里	谷安里	谷安里 谷安里	
月安里	月安里	月安里	五西里 五西里	연제부터 '五西里'로 불렸는 지는 불명
塔洞里	塔洞里	塔洞里		
檜洞里	檜洞里	檜洞里		
大谷里	東大谷里 西大谷里	東大里 西大里		
理明里	理明里	耳明里	耳明里 耳明里	표기 바뀜
木花里	木花里	木花里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명
倉浦里	倉浦里	倉浦里	昌浦里 昌浦里	*표기 바뀜
所浦里	所浦里	所浦里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명
時落里	時落里	時落里	時落里 時落里	*鼎谷里를 時落里에 편입
鼎谷里	鼎谷里	鼎谷里	鼎谷里 鳳谷里	
		鳳谷里	鳳谷里 鳳谷里	
		挑山里		『명칭일람』에만 나오는 이름
		眞木里		『명칭일람』에만 나오는 이름
		柿洞里		『명칭일람』에만 나오는 이름
		中洞里		『명칭일람』에만 나오는 이름
		東山里	東山里 東山里	
		良村里	良村里 良村里	*『신구대조명칭』에서는 '大井'을 함안군 比谷面 소속이라고 기록
		大井洞	大井里(함안)	
		日陰里	日岩里 日岩里	
		鳳岩里	鳳岩里 鳳岩里	
		鉢 里		『명칭일람』에만 나오는 이름
		飛羅里		『명칭일람』에만 나오는 이름
14마을	15마을	19마을	7마을	15마을 13마을

<표 1>을 보면, 『경상도읍지』와 『영남읍지』의 경우, 마을 이름에 거의 차이를 보여 주지 않지만, 『명칭일람』에 이르면 栗峙里라는 1개 마

음이 기록되지 않은 반면, 鳳谷里 등 5개 마을이 더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칭일람』은 비록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제 강점기에 발간된 책이긴 하지만, 거기에 실려 있는 행정 구역(마을) 이름은 구한 말 우리 나라 조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기재된 5개 마을이 일제에 의해 새로 생긴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문헌에 오르지 않은 것인지, 『영남읍지』 이후에 새로 생긴 마을 이름인지는 현재의 필자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명칭일람』에 진서면 외에 양전면 관할 마을 이름까지 정리한 것은, 위에서 밝힌 대로 1914년에 일제는 대대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행정 구역 개편 이후¹⁴⁾ 당시 경상남도 창원군 진전면은 이전의 진서면, 양전면 관할 26개 마을에서 13개 마을로 통폐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제가 진서면의 月安里~西大里의 5개 마을을 통폐합하여 五西里라는 새로운 마을 이름을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도 진서면 鼎谷里와 함안군 소속 大井里를 독립적인 마을(里)로 인정하지 않고, 보다 큰 마을 속에 통합시켜 버린 사실도 확인된다. 데이터베이스화할 때는 이런 사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란을 두어 마을 이름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요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헌상으로 사라진 이름 月安里, 塔洞里, 檜洞里, 大谷里(東大谷里·東大里, 西大谷里·西大里), 木花里, 所浦里, 鼎谷里, 鳳谷里, 桃山里, 眞木里, 柿洞里, 中洞里, 大井里, 鉢里, 飛羅里

△ 새로 등장한 이름 · 五西里

△ 표기가 바뀐 이름 : 理明里→耳明里, 倉浦里→昌浦里, 日陰里→日

14) 그것이 반영된 최초의 문헌이 『신구대조명칭』(1917)이다

岩里¹⁵⁾

이러한 작업은 면 단위 행정 구역명, 도 단위 행정 구역명으로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로 한다.

<표 2> 김해시 면 단위 행정구역명 변천표¹⁶⁾

輿地圖書 (1757~ 1765년)	慶尙道 邑誌 (1832년경)	嶺南 邑誌 (1895년)	名稱 一覽 (1912년)	新舊對照 名稱 (1917년)	일제 시대	해방 이후	현 재	비 고
金海鎭 金海 都護府	金海鎭 金海 都護府	金海鎭 金海 都護府	慶尙南道 金海郡	慶尙南道 金海郡	慶尙南道 金海郡	慶尙南道 金海市/ 郡	慶尙南道 金海市	
活川面	活川面	活川面	活川面	左部面	金海面 (1918) → 金海邑 (1931)	金海市 (1981)	金海市 여리洞	
左部面	左部面	左部面	左部面					
七山面	七山面	七山面	七山面	右部面				
右部面	右部面	右部面	右部面					
栗亦面	栗里面	栗里面	栗里面	進禮面	進禮面	進禮面	進禮面	
進禮面	進禮面	進禮面	進禮面					
柳等也 ^㉑	柳等也面	柳下面	柳下面	長有面	長有面	長有面	長有面	
遼村面 ^㉒		長有面	長有面					
			上北面	二北面	二北面	二北面	翰林面 (1987)	
下北面	下北面	下北面	下北面					
中北面	中北面	中北面	中北面	下界面	進永面 (1928)→ 進永邑(19 42)	進永邑	進永邑	
下界面	下界面	下界面	下界面					
台也面	台也面	台也面	台也面	菴山面	菴山面	釜山에 편입(1989)		
	菴山面	菴山面	菴山面					

15) 日陰里에서 日岩里로 바뀌었다고 말한 것은 필자의 직관에 의한 것이다.

16) 김정대(1997나·34)에서 인용.

輿地圖書 (1757~ 1765년)	慶尙道 邑誌 (1832년경)	嶺南 邑誌 (1895년)	名稱 一覽 (1912년)	新舊對照 名稱 (1917년)	일제 시대	해방 이후	현 재	비 고
酒村面	酒村面	酒村面	酒村面	酒村面	酒村面	酒村面	酒村面	
上東面	上東面	上東面	上東面	上東面	上東面	上東面	上東面	
下東面	下東面	下東面	下東面	下東面	大東面 (1944)	大東面	大東面	
生林面	生林面	生林面	生林面	生林面	生林面	生林面	生林面	
鳴旨島	鳴旨島面	鳴旨島面	鳴旨面	鳴旨面	鳴旨面	釜山에 편입(1978)		
		德島面	德島面	駕洛面	駕洛面	釜山에 편입(1989)		
		駕洛面	駕洛面					
	(梁山郡)大上 下同坊	(梁山郡) 大上下同 坊 ^③	大上面	大渚面	大渚面	大渚邑(1973) →釜山에 편입(1978)		
			大下面					
大山面	大山面	大山面	1906년에 昌原府에 편입된 이후, 지금은 昌原市 관할이 됨					

- ① ‘柳等也(面)’이 ‘柳下面’이라는 사실은, 『경상도읍지』와 『영남읍지』의 면 배열, 그리고 관문에서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나오는 것이다. 즉, 전자에서는 관문 남쪽에 “七山面, 柳等也面(20리), 台也面”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후자에서는 관문 남쪽에 “七山面, 柳下面(20리), 台也面”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 ② ‘遊村面’을 ‘長有面’으로 본 것은 필자의 다음과 같은 추론의 결과이다. ‘長有面’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은, 長有面이 長遊山, 長遊庵과 뗄 수 없는 관계(같은 발음, 거리상의 가까움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遊村面の ‘遊’자는 長遊山の ‘遊’자와 상관될 것이 틀림없겠다는 것이다.
- ③ ‘大上下同坊’은 그 뒤 양산군 大上面과 大下面이 되었다가, 1906년 9월 24일자로 김해군 관할이 되었다

<표 3> 경상남도 관할 시·군 행정구역명 변천표¹⁷⁾

조선 후기	1906년	1910년	1914년	일제 시대	해방후~ 1990년		오늘날
固城縣	固城郡	固城郡	固城郡	固城郡	固城郡		固城郡
	鎭南郡	龍南郡	統營郡	統營郡	統營郡	統營郡 忠武市	統營市
巨濟 都護府	巨濟郡	巨濟郡			巨濟郡	巨濟郡 長湍市	巨濟市
金海 都護府	金海郡	金海郡	金海郡	金海郡	金海郡	金海郡 金海市	金海市
昌原 大都護府	昌原府	馬山府	馬山府	馬山府	馬山市		馬山市
鎭海縣	鎭海郡		昌原郡	昌原郡	昌原郡	昌原郡 昌原市	昌原市
熊川縣	熊川郡					鎭海市	鎭海市
密陽 都護府	密陽郡	密陽郡	密陽郡	密陽郡	密陽郡	密陽郡 密陽市	密陽市
泗川縣	泗川郡	泗川郡	泗川郡	泗川郡	泗川郡	泗川郡	泗川市
昆陽郡	昆陽郡	昆陽郡				三千浦市	
蔚山 都護府	蔚山郡	蔚山郡	蔚山郡	蔚山郡	蔚山市	蔚山市	(蔚山 廣域市)
彦陽縣	彦陽郡	彦陽郡				蔚州郡	
梁山郡	梁山郡	梁山郡	梁山郡	梁山郡	梁山郡	梁山 郡	梁山市
機張縣	機張郡	機張郡	東萊郡	東萊郡	東萊郡		(釜山 廣域市)
東萊 都護府	東萊府	釜山府	釜山府	釜山府	釜山市 (釜山直轄市)		
晉州牧	晉州郡	晉州郡	晉州郡	晉州府	晉州市		晉州市
				晉陽郡	晉陽郡		

17) 김정대(1997나 29-30)에서 인용한 것인데, 거기에는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로 바꾸었다.

조선후기	1906년	1910년	1914년	일제시대	해방후~ 1990년	오늘날
居昌 都護府	居昌郡	居昌郡	居昌郡	居昌郡	居昌郡	居昌郡
安義縣	安義郡	安義郡	咸陽郡	咸陽郡	咸陽郡	咸陽郡
咸陽郡	咸陽郡	咸陽郡				
南海縣	南海郡	南海郡	南海郡	南海郡	南海郡	南海郡
山淸縣	山淸郡	山淸郡	山淸郡	山淸郡	山淸郡	山淸郡
丹城縣	丹城郡	丹城郡				
宜寧郡	宜寧郡	宜寧郡	宜寧郡	宜寧郡	宜寧郡	宜寧郡
昌寧縣	昌寧郡	昌寧郡	昌寧郡	昌寧郡	昌寧郡	昌寧郡
靈山縣	靈山郡	靈山郡				
河東 都護府	河東郡	河東郡	河東郡	河東郡	河東郡	河東郡
咸安郡	咸安郡	咸安郡	咸安郡	咸安郡	咸安郡	咸安郡
漆原縣	漆原郡					
陝川郡	陝川郡	陝川郡	陝川郡	陝川郡	陝川郡	陝川郡
草溪郡	草溪郡	草溪郡				
三嘉縣	三嘉郡	三嘉郡				
	鬱島郡	鬱島郡	(慶北 鬱島郡)	(慶北 鬱陵郡)	(慶北 鬱陵郡)	(慶北 鬱陵郡)
1목 8부 7군 14현	32군	2부·27군	2부 19군	3부 19군	10시 19군	10시 10군

* ()는 경상남도 관할이 아님을 뜻하는 것임.

2) 현지 조사 자료

①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현지 조사를 통해 지명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헌 자료에 등재된 지명 자료만을 정리할 때 생기는 세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 가는 지명 자료를 시급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당위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우리가 현지로 나가 지명을 조사해 보면,¹⁸⁾ 문헌에 등재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명이 있음을 알고는 놀라게 된다.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서 새로운 지명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문헌에 실리는 지명은 꽤 ‘굵직한’(비중 있는) 것만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현지 조사를 통해 보다 생생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현지에서 지명을 조사할 때는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은 여러 문헌을 통해 그 마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에 도착해서는 그 마을과 마을 주변을 둘러싼 자연 환경을 현 종이에 지도 형식으로 그려 두는 것이 유익하다. 그냥 지명을 조사하게 되면, 제보자도 생각나는 몇 가지만 언급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마을 뒤에 산이 있고, 마을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산꼭대기에서 출발하여 마을 앞 들까지 짚어나가든지, 반대의 순서로 짚어가면서 조사를 하면, 거의 놓치지 않고 지명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조사 도중, 그것이 바위 이름이면 <바위>, 고개 이름이면 <고개>와 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돌아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사한 항목에는 일일이 번호를 붙이고, 지도 위에도 해당 지역의 번호를 기재하여, 유기적인 설명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

문헌에는 기껏해야 마을 이름이나 이름 있는 산·고개, 강·내, 나룻터 정도만 기재되지만, 실제 조사에서 얼마나 다양한 지명이 나오는가 하는 한 실례를 김영태(1979가나→1998:516-519)에서 보기로 한다.¹⁹⁾ 현지 자료를 조사할 때는 지명의 성조도 함께 조사하여 표시해 두어야 함은 특별히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성조 표시가 없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망설여지는 조사 보고서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

18) 지명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김영태(1983→1998)을 참조.

19) (82)와 같은 번호는 김영태(1998)의 일련 번호이다.

다.²⁰⁾

- (82) 퇴촌<마을> …… 속음 「디촌」, 「退老村」의 약칭이라는데, 가락국 시대 정승들이 늙어 정계에서 은퇴할 때는 여기 와서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 (83) 우단골<마을> …… 「上村」을 일컫는 말. 윗쪽에 있는 마을의 뜻. 행정상으로는 퇴촌에 속하나 별개의 마을이다
- (84) 정병산(精兵山)<산> …… 속음 「징빙산」. 해발 556m 「불모산」, 「장복산」과 함께 창원 공단지역을 싸고 있는 병풍산이다. 이 산록에 상촌, 봉림, 용동, 고산, 신덕, 사파정 등 많은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다.
- (85) 수리당(담) 먼디이<봉우리> …… 상촌 뒷산 「정병산」의 봉우리. 이곳은 큰 바위들이 엉켜 있는데 이를 「수리(당)방우」라 한다. 「수리」를 양주동(고가연구. p 11, 321, 413) 님은 「峰」의 古訓이라고 했다. 「먼디이」는 「먼당」으로 “봉우리, 꼭대기”의 방언
- (86) 잿고개(일명 절꿍)<고개> …… (85)에서 龍洞쪽으로 가는 낮은 고개.
- (87) 새이바구<바위> …… (86)에서 용동쪽에 있는, 상여를 놓아 둔 것 같은 형상의 바위. 일명 「매바구」. 정월 대보름달이 이 바위의 아래편에서 뜨면 풍년이 들고 위편에서 뜨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다.
- (88) 재빨때기(일명 재빨등)<등성이> …… 퇴촌과 상촌 사이의 중턱을 가리킨다.
- (89) 부치바구<바위> …… (88)에서 상촌쪽의 등성이에 있는 여래입상 형상의 큰 바위.

20) 필자는 경남 방언의 성조소는 고·중·저조와 같은 3단인 것으로 간파하고 있다. [남1개]와 같이, 아래 첨자 '1'은 저조, 아무런 번호가 없는 것은 중조, 그리고 [양3꿀3]과 같이, 위 첨자 '3'은 고조임을 나타낸다.

- (90) 산꼴(산꼴)<꼴> · · · (89)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평퍼짐한 기슭 일대를 말함. 축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 (91) 배룩박꼴짜<꼴> ····· (90)에서 「소목고개」로 가는 도중의 꼴짜기. 꼴짜기의 언덕이 「배룩박」(벽의 방언)처럼 가파르다.
- (92) 굿방우<바위> ····· (85)와 상촌 마을의 중간 등성이에 있는 바위로 좌우 꼴짜기에 샘이 있어 부락민들이 치성을 드리던 곳이며 이 등성이를 「굿발등」이라 한다. 「굿방우」의 위쪽에 「송굿방우」가 있다
- (93) 물뚱발<등성이> ····· (92)에서 퇴촌쪽에 있는 등성이 바위들이 말의 뚱같이 모닥모닥 놓여 있다.
- (94) 불탄등<등성이> ····· (92)에서 용동쪽에 있는 등성으로 옛날부터 불이 자주 났다 함.
- (95) 매방지<등성이> ····· (90)의 오른쪽에 있는 낮게 평퍼짐한 등성이.
- (96) 뿔근등(붉은등)<등성이> ····· (95)의 오른쪽 (92)의 아래쪽 등성으로 나무는 별로 없고 붉은 황토가 노출되어 있다.
- (97) 대지바구(돼지바위) <바위> ····· (96)의 꼬트머리에 있는, 살찐 돼지와 같이 생긴 바위.
- (98) 절앞<등성이> ····· (96)에서 용동쪽에 있는 등성이. 이 등성의 왼편에 절이 있었다고 함
- (99) 참새미<샘> ····· (98)의 「절앞 참새미」, 「따발꼴」 아래 있는 샘들인데 물이 매우 차다
- (100) 글거등<등성이> ····· (98)의 오른쪽 등성이
- (101) 허문꼴<꼴> ····· (100)의 윗쪽에 있는 꼴 꼴짜기가 험하다
- (102) 진등<등성이> ····· (101)의 오른쪽에 있는 등성이. 「길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
- (103) 바하달카이<등성이> ····· (102)의 끝부분이 방앗가래(Y자형)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

- (104) 옥시개울<개울> …… (97) 아래에서 마을의 「웃뭇」으로 흐르는 개울. 물이 깨끗하다. 옥색 개울(?).
- (105) 죽도가리<논> …… (104)곁에 있는 논인데 죽 한 그릇과 바꾼 논이라고 한다
- (106) 덧등(뒹등)<등성이> …… 마을 뒤를 감싸고 있는 야산.
- (107) 산밭골(일명 못밭골)<들> …… (106)과 (96) 사이의 논밭들.
- (108) 뜰깎<들> …… 마을 서북쪽에 있는 천수답의 논밭들.
- (109) 소자문고개(孝子門고개)<고개> …… 상촌에서 퇴촌 웃각담으로 넘어가는 고개 옛날 효자문이 있었다고 한다.
- (110) 서재배미<논> …… (109) 바로 아래 옛날 書齋터였다는 논
- (111) 진배미<논> …… 퇴촌 「舊뭇」 위쪽의 길다란 논.
- (112) 똥메산<산> …… 마을 서쪽에 있는 야산.
- (113) 장사짚갯돌<바위> …… 상촌 「아랫뭇」 곁에 있는 다섯 개의 커다란 바위. 옛날에 장사가 짚개(끈, 살구, 짜새)받던 돌이라는 전설이 있음
- (114) 돌타리새미<우물> …… (113) 곁에 있는 우물
- (115) 장사 손 짚은 바구<바위> …… (113)에서 上林(上村 아래에 있는 자연부락)쪽에 있는, 장사가 손을 짚었다는 전설이 있는 바위인데 그 위에 손바닥 흔적이 있다.
- (116) 송지이 논<들> …… 상촌 진입로 조금 위에 있는 논.
- (117) 두랑고개<고개> …… 해병대 훈련장에서 상림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는, 「두랑」이란 장사가 살았다는 고개.
- (118) 건넌들<들> …… (117)과 「상림」 사이의 논. 「건너가는 곳에 있는 들」.
- (119) 따밭골<골> …… (117)에서 龍洞으로 통하는 길 왼편 골짜기
- (120) 비석곶<위치> …… 상촌에 집단 거주하는 김해김씨 선조의 비석이 있는 「追慕閣」(檀山公派 1대조 金重喆 장군 추모각) 일대를 일컫음.

- (121) 정지나무²¹⁾<나무> 상촌에 있는 거목. 부락민 휴식처.
 (122) 정나아곶(정낭곶)<위치> (120)과 (121)이 있는 일대.
 (123) 메뚜곶<위치> 마을 가운데 묘가 있는 곳
 (124) 계밀<등성이> 마을 뒤, 현재 과수원이 있는 등성이
 (125) 녀바알(녀발)<골> (124)에서 「젓고개」로 올라가는 곳에
 있는 너들경(많은 돌이 길게 뻗어 있는 비탈) 골짜기
 (126) 누른둥(누운둥)<등성이> 상촌과 용동의 경계가 되는 등
 성이. 황토로서 누렇다고 「누른둥」, 길게 누었다고 「누운둥」,
 길다고 「진둥」 등으로 불린다.
 (127) 묵답<들> 마을 아랫부분에 있는 논. 「묵은 전답」이란
 뜻.
 (128) 국논<논> (127)과 개울을 사이하여 마주보는 논인데 옛
 날에 국 한 그릇과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다.
 (129) 청수굿대<들> 마을 앞 냇가 있는 곳
 (130) 시골밭(새골밭)<밭> 「누른둥」을 지나 「용동」쪽에 있는
 밭
 (131) 물령개(물넘개)<못> 마을 「웃못」의 물이 넘치도록 만들
 어 둔 곳.

위 자료는 이전의 경상남도 창원군 퇴촌리 상촌부락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상촌'(上村. 우단골<웃안골>)이라는 지명은 마을 이름만 『신구대조명칭』에 한 번 나올 정도로 문헌 자료에서는 철저히 외면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현지 조사를 통해 금쪽 같은 51개의 지명 자료를 확보했으니, 이로써 현지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 하는 점은 스스로 분명하다 하겠다

21) 김영태 님의 본자료에는 '정자나무'로 되어 있으나, 마을 사람들의 현실 발음은 '정1지나무'였기에, 필자가 수정해 놓은 것이다.

② 토박이말 확인

현지에서 지명 조사를 하는 또 다른 의의는 문헌에 기재된 한자어 지명의 토박이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朝鮮地志資料』(1914 이전)와 같은 예외적인 자료가 없지는 않지만, 절대 다수의 자료에는 전통의 지명이 한자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朝鮮地志資料』와 같이, 토박이말로 된 지명이 한자어 지명과 함께 적힌 경우가 있다 해도 여기에 기재된 지명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통해 다양한 토박이말 지명을 찾는 일은 매우 소중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는 필자의 경험담 한 가지만 소개하는 것으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현행 행정구역으로 경남 마산시 구산면 난포리의 ‘난포’(卵浦)에 대한 전통 지리서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세종실록지리지』(漆原縣 조), 『신증 동국여지승람』(昌原都護府 및 漆原縣 ‘산천’ 조), 『대동지지』(昌原 및 漆原 ‘산수’ 조), 『경상도읍지』·『영남읍지』 중 ‘창원부읍지’ (‘산천’ 조 및 ‘봉수’ 조) 등에는 ‘餘音浦’로, 『세종실록지리지』(‘창원도호부’ 조)에는 ‘餘浦’로, 『경상도속찬지리지』(‘漆原’ 편 ‘漁梁’ 조)에는 ‘余浦’로 나오지만, 이 모든 표기는 ‘남개’를 적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남’을 여(餘)로써 ‘남’을 나타내고, “소리 음(音)”으로써 ‘남’의 末音이 ‘口’임을 확인해 주며(말음 첨기), “개 포”로써 ‘개’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餘浦’는 말음 첨기 없이 그대로 ‘남개’를 나타낸 것이고, ‘余浦’의 ‘余’는 ‘餘’를 간략화한 것이었다. 『경상도읍지』와 『영남읍지』에서는 마을 이름으로는 ‘藍浦’[남개]를 쓰고, 포구나 봉수 이름으로는 ‘餘音浦’[남개]를 씀으로써 같은 발음에 대해 표기를 달리한 재미 있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²²⁾ 전자는 ‘소리-뜻’으로, 후자는 ‘뜻-(소리)-뜻’으로 읽었던 것이다. 마산시 행정 지도에는 ‘卵抱’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藍浦’를 후세 사람들이 소리로만 읽은 ‘남포’를 ‘난포’로

22) 『호구총수』에도 ‘藍浦’로 나온다.

잘못 이해하고 적은 표기이다(김정대 1997가 1427-8)

이 경우는 이론적으로 ‘남개’가 재구될 수 있지만, 현지에서의 지명 조사를 하면 보다 확실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성조가 [남¹개]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이나, 옛날부터 살았다 해도 흘러간 세대의 주민들은 ‘남개’보다 ‘남포/난포’로 부르고 있어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 미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이란, 다양하게 수집된 지명 자료를 언어학적으로 엄밀하게 조명해 나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자료가 언어학적 조명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진척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수 자료의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²³⁾ 민간어원은 특히 경계를 요하는 부분이다. 경남 지역 지명을 대상으로 한 한 두 가지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경남 창원·진해 지역에는 [양³꿀³]로 발음되는 ‘안골’과 [양³꿀]로 발음되는 ‘안골’이 있다. 이들의 의미를 추정하는 일은 그 음운론적인 차이를 주목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할 수 있다. 전자와 같이, ‘꿀’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성조가 고조로 실현되면 그 의미는 /골짜기/(谷)인데, 이것은 현지에서 지명 조사를 조금만 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양³꿀³]은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우³당꿀], [새³양꿀]은 각각 ‘웃안골’(上內谷), ‘새안골’(新內谷)의 발음이고, 이 말들은 각각 [웃[안골]], [새[안골]]로 분석되며, 그 의미는 각각 ‘위쪽 안골, 새로운 안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와 같이, ‘꿀’이 예사소리로 발음되고 또 중조로 실현될

23) 어원이 너무 분명하여 언어학적 조명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 ‘새터’(新基), ‘한내’(大川), ‘웃각담’ 등의 ‘새-, 한-, 웃-’ 등이 그러한 예이다.

때는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됨이 주목된다. 이 말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치렀던 이름난 곳 가운데 하나인 ‘安骨浦²⁴⁾’와 관련된 지명이다. 安骨浦를 두고 이 곳 사람들은 [양³골개]라고 하고, 줄여서 [양³골]이라고 하는 바, 이는 ‘골개의 안쪽’이라는 의미이다. ‘안쪽에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골³개³]라는 지명을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은 경남 마산의 애초의 이름으로 문헌에 적힌 ‘骨浦’의 발음이 곧 [골³개³]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과외의 소득도 올릴 수 있다. ‘안골개’는 [안[골개]], 즉 ‘안골’이 한 묶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명에 남아 있는 음운론적 사실이 어떻게 지명 해독에 이바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김정대 2001나 30-34).

이제, [돌₁타리 새₁미]²⁵⁾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주목해 보기로 한다. ‘새미’는 ‘새, 우물’의 뜻을 지니는 경남 방언이다. 따라서 문제는 ‘돌타리’에 집중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돌타리’는 ‘돌로 된 다리’(石橋)의 뜻이다. 문제는, 石橋가 왜 [돌타리]로 발음되지 않고 [돌타리]로 발음되는가에 있다. 15·16세기 중세 국어에서 ‘돌’은 ‘ㅎ’ 종성을 가진 ‘돌’이었지만, ‘돌개(石浦), 돌드릿 구름, 돌드리, 돌달고, 돌구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어로 쓰일 때는 결코 ‘ㅎ’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지명에는 ‘돌타리’로 남아 있는 이런 사실을 두고 우리는 어떤 국어사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가.

‘돌’이 ‘ㅎ’ 종성 체언으로 쓰이던 시절인 데도 그 합성어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무렵에 합성어를 이룰 때는 절음 법칙이 작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명쾌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24) 경남 진해시 청안동에 있다. 진해에서 바닷가 길로 따라 부산으로 가는 지역에 속한다

25) 필자의 고향이었던, 옛 경남 창원군 상남면 상촌리(현재 경남 창원시 사림동), 지금의 창원대학교 자리에 있었던 지명의 하나로, 위 김영태(1998)의 자료 (114)번이다.

‘똥+개’가 연음 법칙이 적용되었더라면, 이는 당연히 ‘돌개’로 되어야 하는데, 절음 법칙이 적용되면 ‘똥#개 → 돌+개’가 되어 ‘개’ 발음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유기음화와 관련되는 국어의 이러한 합성어 형성 방법은 15세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돌타리’는 국어사의 그 어느 시절에는 합성어도 연음 법칙에 의해 성립되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는 자료였던 것이다(김정대 2001나:43-46).

IV. 방언의 표준어 사정 작업

1 사정의 필요성

이론적으로 말해, 방언이 표준어에 비해 ‘더 하위의 말’, ‘기피 대상의 말’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서울에서 사는 지역 출신 사람들이 표준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중압감은 상상 밖으로 크다.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밀려난다는 강박 관념은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다음 ‘장면’을 생각해 보자.

부산에서 서울로 ‘유학’ 온 한 대학생이 오랜만에 부산에 살고 있는 한 여고 동창의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부산말로 얘기를 걸어오는 그 친구에게 무엇에 홀렸는지 서울말로 대답하기 시작한다. 도중에 갑자기 말투를 바꾸기도 쉽지 않아 부산말과 서울말이 교차하는 둘 사이의 대화엔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그 친구에게 어설 뜯은 서울 티를 낸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후회가 밀려온다. “어휴, 내가 미쳤지, 미쳤어!” (정진웅 2004:53)

이런 내용이 일부 방언을 표준어로 사정해야 한다는 본고의 주장과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표준어는 보다 광범위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규범적인 언어 형식으로서 언어의 분열을 억제하려는 통합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이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언어 분열을 임의적으로 억제시키려는 성문화된 언어(이상규 1987:83)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표준어 형성 과정은 서구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서구의 표준어들이 수세기에 걸쳐 오랜 언어 표준의 시기를 통해 공통어로서의 기능을 발전시켜 오면서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와 민족 국가라는 정치 체제의 등장과 함께 형성되었다면, 우리 나라에서의 표준어는 일제 시대에 문화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일부 엘리트들의 의식적인 추진과 노력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이다(조태린 2004:79 참조). 서구 국가들의 공통어는 어느 한 방언(지역어)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방언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성된 것인 반면, 우리 나라는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의 방언을 표준어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차이였던 것이다. 그러니 우리 나라의 경우, 표준어의 위상이 어느 방언의 그것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갑자기 서울말이 중심이 된 표준어를 버리고, 공통어 중심의 새로운 표준어를 제정해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런 인식조차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표준어는 하늘로부터 떨어진 ‘절대 강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과 관련해, 늦긴 했지만, 지방 분권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하겠다. 지금부터라도 현행 표준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 공통어’ 선정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 공통어 선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당연히 각 방언들을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1986년~1988년에, 지금의 국립국어연구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에서는 기관지 『국어 생활』을 통해, 방언 속에 묻힌 좋은 우리말을 살려 쓰는 기획을 마련한 일이 있다. 비록 4회로 한정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²⁶⁾ 당시 매우 시사적인 언급이 있었음은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이

26) 당시의 필자는 이익섭(1986), 김영배(1987), 이상규(1987), 김영태(1988) 교

제 필자는 그곳에서 제시된 내용과 평소 생각하던 바를 합하여, 방언을 표준어로 선정하는 방법론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이런 작업은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나라 전체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²⁷⁾ 내 고장의 말이 표준어로 사용된다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것은 사회적인 현상으로서의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표준어가 갖고 있는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가 우리 나라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다 드러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부족한 부분을 방언이 메워나가야 하고, 메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적인 현상으로서의 접근 방법이다.

2.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

그러면, 방언의 표준어 사정 원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이 점은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내적 문제란, 방언을 표준어와 관련시켜 문제를 해결해

수였다.

- 27) 지금 정부에서는 충남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기정사실화 하고 실무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면, 서울말 중심의 현행 표준어의 위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수도(서울) 중심의 표준어 선정 작업에는 허점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실제로, 표준어 선정 작업이 급물살을 타던 1930년대에 홍기문은 수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예로 들면서, 당시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 선정 작업에 반대했던 것이다(홍기문 1935). 소수이긴 하지만, 홍기문을 비롯한 표준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의의 대강은 조태린(2004 80-81)를 참조할 수 있다.

나가는 것이다. 언어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우리는 ‘이원성’(duality)을 들곤 하는데, 그것은 언어(특히, 단어 차원에서 언어)²⁸⁾가 시니피에(내용)와 시니피앙(형식)의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머리에 떠올리면 체계가 다른 두 언어(방언)의 어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과 관련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첫째, 형식 동일 — 의미 동일 (동형동의어)

둘째, 형식 이질 — 의미 동일 (이형동의어)

셋째, 형식 동일 — 의미 이질 (동형이의어)

넷째, 형식 이질 — 의미 이질 (이형이의어)

첫째의 동형동의어는 언급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것이다. 방언도 서울말과 마찬가지로 표준어이기 때문이다(‘사람, 가다, 회다, 새, 잘, -다’ 등등) 둘째의 이형동의어는 복수 표준어 선정과 관련된다. 복수 표준어 선정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어 분포로 보아 서울말보다 분포가 넓은 지역에서 쓰이는 이형동의어는 복수 표준어로 등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렁쟁이/명게, 옥수수/강냉이’의 관계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분포가 표준어만은 못하다 해도 뉘앙스가 다른 어형도 복수 표준어로 올리는 것이 좋다. 영남·호남 방언 등에는 ‘보듬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표준어 ‘안다’와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 경우, ‘보듬다’도 ‘안다’와 함께 복수 표준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의 동형이의어는 표준어에 새로운 동음어를 등재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기억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의미의

28) 그러나 언어 단위를 구 이상으로 확대하면 언어의 ‘이원성’적 특성은 ‘삼원성’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김정대 1999 9-10 참조).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마지막 넷째의 이형이외어는, 방언이 표준어로 등재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경우의 예이다. 방언을 표준어로 등재시키는 경우를 한 가지만 들라 하면, 이 넷째가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왕이면, 한 방언에 궁벽진 것보다는 여러 방언에 함께 보이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그 한 보기가 된다. 영남·호남 방언 등에는 ‘병을 낫게 하다’의 뜻을 갖는 ‘낫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반드시 표준어로 사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의미의 어휘라면, 궁벽진 것이라고 해도 표준어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위 첫째~셋째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동형에 대한 유형(비슷한 꼴), 동의에 대한 유의(비슷한 뜻)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모여 앉아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겠지만, 우리의 잠정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유의(의)의 경우는 표준어로 받아 들여 다의어적인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만, 유형의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하나로 형태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적 문제란, 위와 같은 네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되, 새로 표준어로 올리는 어휘는 가능하다면 한자말보다는 토박이말이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말(표준어) 다수의 어휘가 한자말로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새로 표준어로 등재되는 방언은 토박이말 중심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은 다수의 방언이 토박이말이라는 데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 제언을 곁해 —

지방분권화 시대의 주요한 어학 연구의 주제로 우리는 방언, 지명, 표준어 사정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방언과 지명에 대해서는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엄밀한 언어학적 해석을 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렇게 다양한 현지 자료가 수집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깊은 연구가 뒤따를 때 표준어 사정 작업의 폭도 넓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 방언 조사를 나가 보면, 웬만한 70-80대 제보자(특히 여성 제보자)는 상당 부분 표준어 어형을 조사자에 제공하여 조사자를 난감하게 만들곤 한다. 경남의 경우, 이제 ‘짐치, 밀가리, 호메이, 풀’ 등은 구경하기 어렵다 ‘김치, 밀가루, 호미, 팔’이 그 자리를 대체한 지는 꽤 오래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짐치’ 등은 안 쓰이느냐고 물어야, 이전에는 그렇게 썼지만 이제는 대부분 ‘김치’를 쓴다고 친절하게 해설해 준다.

그러나 어휘 요소와는 달리, 문법 요소와 관련되는 방언은 아직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방언도 시대에 따라 꾸준히 변화해 온 존재라는 점을 생각하면, ‘짐치’ 등이 사라진 세대만을 통탄해 할 것이 아니라, ‘풍부히’ 남아 있는 방언 문법 요소들, 그리고 아직도 다수 남아 있는 전통적 어휘를 조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이 작업과 아울러 ‘자연 발화’ 그대로를 녹음하여 기계음으로 저장한 뒤 자손만대로 물려 주는 일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제 방언 자료의 조사는 연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문화 전승’이라는 측면으로도 접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과 경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정부 등의 대폭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방언 자료와는 달리, 지명 자료는 문헌으로도 전승되어 왔다. 그러나 문헌 등재 자료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하루 빨리 현지 지명 조사를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분담을 하여 자기 고장 쪽의 자료부터 정밀하게 조사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NURI 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이 이른바 ‘돈 되는’ 이공계열 쪽으로만 집중되지 말고, 인문

계열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표준어는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표준어 사용 자체가 또다른 계급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은 정확히 지적되어야 한다. 이제 와서 표준어 사정 원칙을 무효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 피해 의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게 되었다. 각 지역의 방언 가운데 좋은 말들을 표준어로 사정하는 일은 그런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아울러 서울말(표준어)에는 없는 다양한 우리말(방언)을 표준어로 사정하는 일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나라의 표준어도, 서울말 중심이 아닌 ‘공통어’ 중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

주제어 . 지방분권화(decentralize), 방언(dialect), 지명(place name), 표준어(the Korean Standard Language), 자연 발화(natural utterance), 거시적 접근(macroscopic approach), 미시적 접근(microscopic approach), 데이터베이스화(to database)

참고문헌

- 곽충구(2002). 방언 연구와 정보화, 홍운표 외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55-88쪽.
- 김영배(1987) 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 — 평안도를 중심으로 —, 『국어생활』 8(1987. 봄). 국어연구소. 110-116쪽.
- 김영태(1979가). 창원 공단 지역의 지명 조사(1), 『여천 서병국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형설출판사 김영태(1998:507-537)에 다시 실림.
- 김영태(1979나). 창원 공단 지역의 지명 조사(2), 『경남대 논문집』 6.

- 김영태(1998:538-558)에 다시 실림.
- 김영태(1983). 지명 연구에 대하여, 『추강 황희영 박사 송수기념 논총 한국어(계통론·훈민정음) 연구』. 집문당. 김영태(1998:483-506)에 다시 실림.
- 김영태(1988). 공통어로 쓰일 수 있는 경남방언, 『국어생활』 12(1988. 봄). 국어연구소. 101-108쪽.
- 김영태(1998). 『경남방언과 지명 연구』.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영태·김형철·김정대(1994). 방언사전 편찬 방법론, 『인문논총』 6.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55-94쪽.
- 김정대(1997가). 방언·옛 지명편, 『마산시사』. 1403-1461쪽.
- 김정대(1997나). 경상남도 면 단위 행정구역명 변천사, 『경상남도 연구』. 경남대 경남지역문제연구원. 21-80쪽.
- 김정대 편저(1999). 『언어와 언어학』.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 김정대(2000) 언어지리학적 관점으로 본 경남 방언의 특성, 『경남문화 연구』.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67-106쪽.
- 김정대(2001가). 방언사전 편찬 방법론, 『경남 방언 연구』(경상대 경남 문화연구원) 한국문화사. 235-279쪽.
- 김정대(2001나). 창원대학교 자리에 있었던 마을의 땅이름 연구, 『단산 학지』 7. 전단학회(창원대). 19-66쪽.
- 김주석·최명옥(2001). 『경주 속담·말 사전』. 한국문화사.
- 김차균(2003). 『영남 방언 성조 비교』. 역락
- 박종갑(1998). 울릉도 지역의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어휘편 I), 『한민 족어문학』 33. 한민족어문학회. 83-115쪽.
-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오종갑(1998). 울릉도 지역의 방언에 대한 실태 조사(음운편 I), 『한민 족어문학』 33. 한민족어문학회. 5-81쪽.
- 이상규(1987). 함께 쓰고 싶은 경북 방언, 『국어생활』 11(1987. 겨울). 국어연구소. 83-89쪽.

- 이상규(2000). 『경북 방언 사전』 태학사.
- 이상규(2003). 『국어 방언학』. 태학사.
- 이익섭(1986). 살려 쓰고 싶은 내 고장 사투리, 『국어생활』 7(1986. 겨울). 국어연구소. 138-144쪽
- 임용기(2002). 지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홍윤표 외 『한국어와 정보화』. 태학사. 89-137쪽.
- 정진웅(2004). 서울과 지방 — 그 중심지향의 문화를 넘어서, 『당대비평』 26(2004. 여름). 생각의 나무. 52-60쪽.
- 조태린(2004).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2004. 여름). 생각의 나무. 74-87쪽.
- 최명옥(1994) 경상도의 방언구획 시론, 『우리말의 연구』(외골 권재선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우골탑 861-892쪽.
-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 연구의 실제』. 태학사.
- 최명옥(2001가). 방언 자료의 수집과 정리, 『새국어생활』 11.2.(2001. 여름) 국립국어연구원. 23-35쪽.
- 최명옥(2001나). 방언 구획 재고, 『경남 방언 연구』(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한국문화사. 213-234쪽.
- 최명옥(2004) 지역어의 조사 원칙과 조사 방법, 2004년도 국립국어연구원 워크숍 발표 자료(2004. 7. 10.~11.).
- 홍기문(1935). 표준어 제정에 대하여 — 제정의 출발점과 삼개의 항목, 『조선일보』 1935. 1. 15.~1935. 2. 3. 연재.

이 논문은 2004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11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
에서 게재·결정된 것임.